



열돌 맞는 과학기술지식정보인프라 축제

제10회 한국과학기술정보인프라워크숍 개최

우리 연구원은 지난 11월 28일, COEX 인터컨티넨탈에서 과학기술정보인프라의 성과발표와 정보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제10회 한국과학기술정보인프라워크숍(KOSTI 2005 워크숍)'을 개최했다.

'KOSTI 2005 워크숍'은 뛰어난 지식정보를 발표하고 교류함으로써 국가 과학기술 발전을 이끌어가기 위해 우리 연구원이 지난 1996년부터 매년 개최해 온 국내 최대 과학기술지식정보인프라 축제다.

'KOSTI 2005 워크숍'에서는 과학기술정보, 정보분석, 슈퍼컴퓨팅, 초고속연구망, 바이오인포매틱스 등 5개 분야 총 142편의 연구논문이 발표됐으며, 이 가운데 "정보 통신서비스의 대체, 보완 현상에 관한 국제비교 연구"를 발표한 서울대학교 이종수 교수에게 과학기술부 장관상인 최우수 논문상이 수여됐다. 이외에 우수논문 4편에 KISTI 원장상이 수여됐다.

특히 이번 'KOSTI 2005 워크숍'에서는 국내 최초의 '슈퍼컴퓨팅 경진대회'가 개최돼 의미를 더했다. 국내 각 연구분야 수십개 연구실이 슈퍼컴퓨팅 활용기술을 겨룬 결과,

일반 PC의 병렬처리를 통해 수십·수백 배 이상의 용량과 성능을 구축하는 '고성능컴퓨팅' 부문에서는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물질량표준부의 이인호 박사팀이, 하드웨어 최적화를 통해 슈퍼컴퓨팅 성능을 극대화시키는 '성능최적화' 부문에서는 서울대학교 항공우주구조연구실 박시형 박사가 최우수상인 과학기술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이 외에 열명의 과학기술자들에게 장려상과 우수상이 수여됐다.

한편, 이번 'KOSTI 2005 워크숍'에서는 미국 IBM사의 부사장인 스테판 W. 브레임(Stephen W Braimz)과 일본 JST(일본 과학기술진흥사업단)의 가즈미 오후라(Katsumi Ohkura) 부장이 각각 "HPC 인프라 혁신을 위한 슈퍼컴퓨팅 수요"와 "JST의 과학기술정보활동"라는 주제의 특별강연을 해 많은 호응을 얻었다.

조영화 원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발표된 수준 높은 연구성과들과 뛰어난 슈퍼컴퓨팅 인력들이 과학기술중심사회를 이끄는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하고 "앞으로도 'KOSTI 워크숍'을 통한 과학기술지식정보인프라 구축과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